

**보도자료**  
**국정감사 간이평가**  
2024.10.23.(31장)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우) (우.0850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2 코오롱에스텐 10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의 국정감사는, 그나마 6.25전쟁과 독재를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세계10위의 선진대국이 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서둘러 선진국처럼 365일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면할 수 없다**

**모든 상임위에서 이 대표 수사·재판, 김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

## 2024년 국감(22-1)은 D-학점, 감사기능 상실 / 범죄인취급 피감기관장

- ▲ **대정부 감사인가? 일반증인 감사인가?** <<일반증인 506명, 참고인 231명/국감종 추가, 변경, 철회 불포함>>
  - 증인신청 문제로 파행과 고성까지 / 타협 없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증인채택과 동행명령
  - 야당은 정부 감사 않고, 의원이 직접 동행명령장 집행(동행명령장 발부/10.22.까지 야당 위원장인 6개 상임위원회 17명 발부
  - **현정사상 초유의 영부인과 대통령장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19대 4개년 0명, 20대 4개년 2명, 21대 4개년 14명에 불과)
  -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21일): 일반증인 24명(출석 2명) 참고인 6명(출석 3명)채택 / 일반증인 감사인가?
  - 타 상임위의 연예인 참고인(뉴진스 하니)의 인기 여파로 국정감사 파행까지(과방위)
- ▲ **한마디도 묻지 않으면서 하루 수십개 기관 불러놓고 종일 대기시켜 / 선진국은 365일 감사**
  - 1, 2주차에 실시한 630개 피감기관(외교위의 재외공관 국감 제외) 중 **209개 피감기관(33.2%)이 질문을 받지 못함**
  - 감사일수는 20년전인 2004년(201일)보다 줄고(142일), 감사대상기관은 역대 최다(802개 기관) - 위원회별 평균 9.6일 형식적 국감
- ▲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생중계 감사장에서 시정잡배와 같은 비속어 남발**
  - 사기꾼, 기생집(양문석), 아랫도리 비호(장경태), 병신(국방부장관), 간족댄다(이광희), 피감기관장을 정신병자(문정복)
- ▲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체 의원 감사시간의 19.89% 차지  
**의원평균 질의시간 22분4초, 위원장 발언 질의 2시간7초(10.7. 방송통신위원회)**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위원 평균질의시간의 5.75배, 전체 의원의 질의 및 발언시간의 22.03% 차지  
**의원평균 질의시간은 15분 15초, 위원장의 발언 및 질의시간은 1시간 27분 42초(10.18. 서울고검)**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0.7. 증인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 의사진행발언이 많아져서 1시간 6분 19초 발언
- ▲ **해마다 늘어나는 현장시찰, 꼼수국감?(출석 의원도, 내용도 ‘깜깜’ )**
  - 현장점검 및 현장시찰도 출석 공개하고, 활동내용을 동영상으로 국민께 알려야

**1. [평가개요]** 지난 26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평가해온 우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22인)은 2024년 제22대 국회 1차년도(22-1) 국정

감사를 온·오프라인으로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합니다.

«국감종합평가 및 “국민복상” 시상은 국감 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발표예정임»

**2. [국감성적]** 우리 국감모니터단은 제22대 국회 1년차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의 3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7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소야대 3번째 국정감사인 금년도(22-1) **국정감사를 “D-학점” <작년 간이평가엔 C-학점>**으로 평가합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로 구성된 제22대 국회는 코로나 19의 위험이 사라지고, 정권 3년차의 국정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 (1) **거대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 (2)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선명한 정책제시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행동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어에 치중하였습니다.

(3) **국회입성한 131명의 초선의원들은** 국정감사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채, 보여주기식 감사로 좌충우돌 하였습니다. 예컨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윤종균 의원은 "허위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한다"면서 장관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올리기도 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학교 급식실 산재사고 및 조리실무사 1인당 급식 인원에 대해 질의한다면서 급식조리노동자 복장으로 감사장에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국악인을 분노케 한 ‘기생집’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본인의 사건 수사 관계자를 ‘셀프 증인 채택’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깁죽댄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3급 비밀)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해 기밀누설을 하였습니다.

«참고» 제20대 국회 첫째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F’학점**을 받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D’학점**이었고, 21대 국회 1차년도는 **코로나(COVID-19) 첫 국정감사로 ‘D’학점**이었고, 2차년도는 **‘대장동’ 국감으로 ‘C-’학점**이었으며, 3차년도 국감 역시 **팬덤 정쟁 국감 ‘D’학점**이었으며, 4차년도 중간평가는 **이재명·선거국감으로 ‘C-’학점**이었음)

### 3. [국감특색 및 요약]

(1)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2년 6개월 간의 국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국정감사이자, 외교, 안보, 경제 등 위기 속 도약이나 후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이면서도

**첫째,** 지난해와 같이 당의 명령이나 받은 듯(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표현이 나와서 파행이 되기도 함)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말꼬리 잡기와 끼워들기, 의원간 고성은 여전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준비, 자료준비를 이유로 휴감하면서 두 세 차례 나눠서 해야 할 것을 하루에 몰아 국감을 하고 현장 시찰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낭비, 부정비리, 국정운영의 제도적 미비 등 국정전반을 점검해서 차년도 예산심사와 입법에 반영하는 헌법상의 막중한 권한·책임임에도 예산낭비, 부정비리 지적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하는 정쟁국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2) 타협의 정치 무색한 증인 논란

- 다수 야당의 '정쟁성' 증인채택, 증인의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반복

- ① 국정감사 이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쟁성' 증인 채택과정에 여당의 불참 내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쟁성' 증인을 대거 채택하였습니다.
- ② 상임위원회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에서만 증인이 147명 채택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는 84명의 증인이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서는 62명의 증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있었던 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이 많았습니다. 10.7. 이전(국회운영위의 경우에는 10.16.)에 채택된 증인만 506명이었고, 국정감사 도중 회의를 통해서 추가·변경·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 ③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참고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64명을 채택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40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16명을 채택하였고, 참고인으로 채택된 뉴진스 하니는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해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아 답변한 반면 **당일 12개 기관증인 중 2개 기관은 질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④ 10.21.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증인이 24명, 참고인이 6명이 출석요구되었는데, 정작 당일 출석은 증인 2명, 참고인 3명으로 국정감사의 권위가 실추됨은 물론, 국정을 감사하는 기관감사가 이난 일반인 감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취졌습니다.
- 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것으로, 이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0.22.까지 무려 불출석 증인 17명에 대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명령장은 야당위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법사, 교육, 행안, 과방, 문체, 환노**)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발부되었습니다(환노위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장은 여야 합의). 21대 국회에서는 4개년 모두 14명에 대해 발부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4개년동안 2명, 19대 국회에서는 발부되지 않은 것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정쟁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제22대 국회가 역대 최고 여야 갈등 국회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 (3)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 감사위원 질의시간 대비 3배 이상 발언·질의한 곳 : 4개 위원회 11곳 국감장
- 정청래 위원장 혼자, 전체 의원 질의·발언시간의 22.54% 차지

- ① 상임위원장의 국감도중 발언 및 질의가 많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은 10.7.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의 평균 질의 시간은 22분4초인데, 위원장의 발언 및 질의시간은 2시간7초였습니다. **감사위원 평균질의시간의 5.44배 발언 및 질의**를 하였고, 전체 발언 및 질의시간인 10시간4

분2초 대비 19.89%에 달했습니다.

- ②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청래 위원장**의 경우 주요 피감기관에서 **감사위원 평균 질의 시간의 4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10.18.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의 평균 질의시간은 15분 15초에 불과했는데, 위원장의 질의 및 발언시간은 1시간 27분 42초나 되어 무려 5.75배나 되었습니다. 10.8.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의 평균 질의시간은 19분36초였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및 질의시간은 1시간22분 36초였습니다. 위원 평균질의시간의 4.2배, 전체의원의 질의 및 발언시간 7시간24분40초의 18.55%를 차지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4.15배 발언과 질의를 하였습니다. 10.18.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제발 그 자리에서 갑질 좀 자제해 달라"고 했다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 ③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정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10.7. 출석요구 증인의 대거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이 많아져서 1시간6분19초 발언하였고, 10.10.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55분42초 발언을 하였습니다.
- ④ 국민의힘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런 양상이 거의 없었는데,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의 경우, 무역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평균질의시간은 11분12초였는데, 위원장의 발언 및 질의시간은 34분 7초로 3.05배로 높았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하 3번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6페이지 도표 등 참조>

#### 4. 대학생모니터, 2024년도 국정감사 이래서 실망

##### (1) 국정감사 내용에서 실망

- ① 피감기관과 관련된 내용과는 무관한 질의를 함. (서울대학교 이O연)
- ② 대부분 질의가 아닌 명령조 발언이었으며 피감기관의 대답을 거부함. 일반적인 지적사항들을 특별한 대안 없이 지적하였음. 정치편향적 질의 이외에는 특별한 질의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중앙대학교 대학원 안O규)
- ③ 중요한 질의가 부족했다. (서울대학교 진O아)
- ④ 질의 시간에 거의 지속적으로 대통령실 관저 이동에 관한 내용만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연세대학교 양O성)
- ⑤ 국정감사와 무관하고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재판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함. (고려대학교 마O혁)
- ⑥ 불필요한 질의로 질의시간을 낭비했다.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없게 만든 장본인이다. 5번의 질의 중 KTV와 김건희 여사를 3번 언급했다. 정상적으로 4번 질의했다면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1번만 한 정도이다. 그리고 태도와 관련해서 목소리가 계속 크고, 발언 때마다 화를 내고 있다. (고려대학교 이O호)
- ⑦ 피감기관장에게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김건희 여사 공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음. (인하대학교 오O화)
- ⑧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감사, 실효성 없는 감사, 고성으로 파행 유발. (덕성여대 김O희)

##### (2) 의원들의 태도에서도 실망

- ① 위원장이 시간 엄수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발언을 이어감. 개인적인 이유

로 위원장과 갈등이 있으며, 이를 국정감사에 언급함. 피감기관장의 질문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 억지스러웠음. (고려대학교 손O한)

- ② 질의 매너를 잘 지키지 못했다. 보충질의 때 이전에 질의한 내용의 중복이었다. 큰 목소리로 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지O익)
- ③ 타의원 발언 중 끼어들기, 고성지르기 및 태도 다소 불량. (서울대학교 김O해)
- ④ 증인 및 상대의원들에 대해 수차례 언성을 높이고 상습적으로 질의 시간을 과하게 초과함. 품위를 해친다는 상임위원장의 경고에도 태도를 전혀 고치지 않고 계속하여 무리한 요구를 함. 증인에 대하여 과도하게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가거나 손가락질을 반복하는 등 매너가 좋지 못함. (고려대학교 마O혁)
- ⑤ 고성 및 비아냥거리는 듯 한 발언. 국정감사보단 정치적인 이유로 피감기관 관련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 당사자를 끊임없이 공격함. 피감기관장이 이야기가 잘 안 들린다고 한 것은 10초 내외인데 이를 빌미로 타 의원에 비해 3분의 추가시간을 더 요구함. 피감기관장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장관에 대한 공격만을 보임. 정해진 시간을 전혀 신경쓰지 않음. (고려대학교 김O후)
- ⑥ 피감기관이 정정하려는 부분에서 끼어들거나 제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오히려 피감기관을 억압하여 답변을 끌어내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국회에서 피감기관을 향해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이며 감사매너에 어긋나는 것이다. (계명대학교 장O정)
- ⑦ 피감기관장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을 자주했으며,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만큼 모두 예의를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을 여러 번 존칭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 이O호)

**5. [모니터소회]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권위자인 어네스트 바크 교수(캠브리지대학교)의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① AGREEMENT TO DIFFER(의견의 불일치는 어쩔 수 없음을 인정), ② COMPROMISE(소수자를 위하여 양보와 타협에 진력), ③ MAJORITY RULE(①②항목으로 최선을 다한 후 최후수단으로 다수결)”고 전제하면서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회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3년간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예산낭비 사례나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 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기 자료는 요약본이며 이하 자세한 간이평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http://www.goodlaw.org))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mailto:goodlaw@goodlaw.org)

※ → 위 3번에 이어

«위원장의 진행발언 및 질의가 의원의 평균질의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던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	감사일자	대상기관	위원장 질의발언시 간	감사위원 평균 질의시간 (답변포함)	질의시간 대비 위원장의 진행 및 발언시간(배)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18	서울고검 등	1:27:42	0:15:15	5.75
과 학 기 술 통 보 신 방 송	최민희	2024-10-07	방송통신위원회 등	2:00:07	0:22:04	5.44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08	법무부 등	1:22:36	0:19:36	4.21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15	감사원	1:16:44	0:18:30	4.15
과 학 기 술 통 보 신 방 송	최민희	2024-10-14	한국방송공사 등	1:29:40	0:22:41	3.95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14	고위공직범죄수사처	0:56:02	0:15:32	3.61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14	법제처	0:12:41	0:03:35	3.54
행 정 안 전	신정훈	2024-10-07	행정안전부 등	1:06:19	0:19:00	3.49
과 학 기 술 통 보 신 방 송	최민희	2024-10-15	방송통신위(증인신문)	1:11:08	0:21:17	3.34
행 정 안 전	신정훈	2024-10-11	경찰청	0:55:42	0:17:49	3.13
산 업 통 상 자 의 소 벤 처 기 업	이철규	2024-10-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0:34:07	0:11:12	3.05

⑤ 위원장의 질의 및 발언시간이 전체 감사위원의 질의 및 발언시간 대비 10% 이상 인 위원회 역시 많아졌습니다. 위원장이 활동이 많아 졌음을 나타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정감사 일정 중 1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국정감사시간의 10%이상을 마이크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의 질의 및 발언시간 대비 위원장의 질의 및 발언시간 비중»

위원회	위원장	감사일자	피감기관	위원장질의 발언시간	전체질의발 언시간	위원장질의 발언이 전체 질의 발언시간에 서 차지하는 비중
법 제 사 법 (지 방 1 반)	정청래	2024-10-17	대전고등법원 등	0:21:30	1:35:24	22.54%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18	서울고검 등	1:27:42	6:38:02	22.03%
과 학 기 술 통 보 신 방 송	최민희	2024-10-07	방송통신위 등	2:00:07	10:04:02	19.89%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08	법무부	1:22:36	7:24:40	18.58%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15	감사원	1:16:44	7:01:53	18.19%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14	고위공직범죄수사처	0:56:02	5:10:20	18.06%
과 학 기 술 통 보 신 방 송	최민희	2024-10-14	한국방송공사 등	1:29:40	8:37:52	17.31%
법 제 사 법 (지 방 2 반)	유상범	2024-10-17	대구고등법원 등	0:14:39	1:33:07	15.73%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14	법제처	0:12:41	1:24:03	15.09%
과 학 기 술 통 보 신 방 송	정청래	2024-10-15	방송통신위원회	1:11:08	8:38:49	13.71%
환 경 노 동	안호영	2024-10-10	고용노동부	0:50:02	6:35:01	12.67%
행 정 안 전	신정훈	2024-10-11	경찰청	0:55:42	7:32:59	12.30%
행 정 안 전	신정훈	2024-10-07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1:06:19	9:02:58	12.21%
법 제 사 법	정청래	2024-10-11	헌법재판소	0:13:09	1:49:37	12.00%

위원회	위원장	감사일자	피감기관	위원장의 발언시간	전체질의발언시간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질의 발언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환경노동	안호영	2024-10-15	경제사회노동위	0:51:38	7:20:58	11.71%
법제사법	정청래	2024-10-07	대법원(법원행정처)	0:45:55	6:55:36	11.05%
행정안전	신정훈	2024-1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51:24	7:45:17	11.05%
행정안전(지방안보)	신정훈	2024-10-17	충청북도	0:18:46	2:53:28	10.82%
농림축산식품(농해양수정산)	여기구	2024-10-16	산림청	0:28:32	4:39:56	10.19%
과방(과학기술방송통신)	최민희	2024-1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14:59	2:27:35	10.15%

**(4) 주파야감(낮에 파행, 심야에 감사) 국정감사의 재등장**

- ①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간사 문정복·조정훈)는 김건희 여사 학위논문과 관련해 증인 불출석으로 일시 정지하였고, 다수 야당의 힘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10.8. 첫날 **주파야감**(주간에는 파행 심야에 감사)으로 자정넘어까지 국정감사를 하였습니다.
- ②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간사 윤건영·조은희)는 10.7. 관저공사 관련 증인이 불출석 하자 동행명령장 발부로 인해 여야가 충돌하였는데, 오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새벽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③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간사 김현·최형두)는 10.15. 방송통신위원회(YTN, TBS관련 증인신문) 국정감사 도중 위원장의 환노위 참고인 뉴진스 하니 면담 발언으로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여, 파행하였다가 다시 살아나 저녁 늦게까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④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간사 김승원·유상범)는 감사원의 감사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파행을 하였는데, 속개하여 저녁 늦게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24일 추가 국정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간사 김승원·유상범)는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로 국정감사가 중단된 뒤, 다시 재개하여 밤 11시가 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김형동)는 10.10.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하다가 자정 넘어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이슈에 집중된 국감 ⇒ 기승전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국감**

- ① **법제사법위원회**의 10.8.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코나아가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년부터 3년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의혹도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가방 수수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으며, 특히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주질의에서 18명의 감사위원 중 박준태 의원만 주질의시간에 이 2개 이슈에서 벗어나 질의를 하였으나, 마지막 4차질의에서 명태균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② **교육위원회** 10.8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 ③ **법제사법위원회**의 10.14.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나왔습니다.
- ④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에 불법으로 특혜를 줬단 의혹을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 ⑤ **보건복지위원회**의 10.16.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⑥ **기획재정위원회**의 10.16.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거론되었습니다.
- ⑦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했을 당시 교통통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⑧ **정무위원회**의 10.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 ⑨ **법제사법위원회**의 10.17. 대전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기관 현안보다는 발표된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10.17. 대구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 ⑪ **법제사법위원회**의 10. 15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가 불충분했다며, '코바나콘텐츠'와 거래했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특혜 여부를 조사면서,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⑫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KTV국민방송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이른바 '황제관람'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KTV의 국악공연이 녹화방송으로 변경됐는데, 김 여사가 현장을 찾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 ⑬ **법제사법위원회**의 10. 18.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⑭ **교육위원회**의 10. 18일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병원 의사가 '주의' 조치 받은 데 대한 야당 의원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 (6) 도가 지나친 국정감사장의 말과 행동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8.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의원들이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국정감사에서 막말 내지 비속어가 횡행했고, 일부 의원들은 막말로 인해 징계청구(10.14. **양문석, 장경태, 김영배 의원은 국정감사장 발언이 아닌 유세발언에서의 막말 때문**)까지 되었습니다.

- ① **장경태 의원의 '아랫도리 비호'**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0.11.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며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는 발언을 하여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 ② **양문석 의원의 '기생집'** - 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김 여사와 무형유산 원로·문하생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 당시 국악인들이 가야금 연주 등 공연을 한 데 대해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냈다"고 발언했습니다.
- ③ **정동영 의원의 '정권의 도구'** - 정동영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0.7.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이 한 줄로 서는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사정기관 소속 17명을 국감장에 한 줄로 세우고 방통위에서 맡은 업무와 지시 라인을 추궁하면서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전략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④ **문정복 의원의 '정신병자'** - 10.11. 교육위원회의 문정복 위원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940년대 영국 국민과 공직자들의 애국심 정도가 현재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강했던 것 같다고 발언함과 동시에 일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문정복 위원은 박지향 이사장을 향해 '정신병자'라고 말했습니다.
- ⑤ **박충권 의원의 '유체이탈화법 스킬을 보고 뽐나요?'** - 1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의원은 "구글은 지사장을 경영능력을 보고 뽐는 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스킬을 보고 뽐나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전임 존 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못 들은 척 하시거나 혹은 통역을 쓰면서 시간이라도 끄셨어요. 좀 더 잘하셔서 아시아 총괄로 승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처럼 국감에서 비웃고 그러시면 본사에서 싫어할 수 있어요."
- ⑥ **김용민 의원의 검찰마크 비판** - 오전에 불참했던 김용민 의원은 10. 17. 법사위의 대전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 안 하시는데요 이게 뭘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검찰 업무 뽐니까? 여기다가 검찰 짝 깔아 놓은 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처음 봤습니다. 피감기관이 여기다 자기네 기관 다 깔아 놓고 차라리 아무것도 붙이지 말든가 하셨어야지 이게 뭘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이게 별거나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이라며 컴퓨터에 부착된 검찰마크를 문제 삼았으며,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 제140조의 질서유지권을 행사한다면서 국감도중 컴퓨터에 부착된 검찰마크 종이를 제거하였습니다.

- ⑦ **박균택 의원의 "순장 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비판하며 "‘자무자판’이란 말 알죠.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는 말이죠. 혼자 묻혀도 될 일인데 같이 순장 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죄 없는 후배들을 끌고 와 레드팀을 만들었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 ⑧ **이건태 의원의 '쓰레기 해결사로 전략'** - 이건태 의원은 10.17.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략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 ⑨ **박은정 의원의 '변호사로서 자질 부족'** - 박은정 의원은 10.14.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에게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라며 정책이나 예산의 문제점이 아닌 개인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7) 사상검증으로 여야 고성과 파행이 야기된 국감**

- 국정감사는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와 부정부패,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것인데,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념이 있는데, 비록 그 신념이 거북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문제 삼아 소중한 국정감사를 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①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일본국적' 발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10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야당은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고 여당은 '마녀사냥'이라며 옹호하는 등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퇴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 탄핵까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여기는 국정감사를 하는 곳이지 '국적감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은 입장을 재차 요청했지만, 김문수 장관이 "역사적으로 해석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본 국적이었다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하자 결국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나"라고 따지며 퇴장을 두 차례 거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관장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나"며 위원장석으로 물러가면서 감사가 다시 중지됐습니다.

**②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5·18북한 개입 가능성'발언**

10.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5·18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반발 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10. 10. 중앙선관위 등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과거)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느냐"고 하자 "그 부분의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③ 김의환 미국 뉴욕 총영사의 발언 '중북좌파세력 분쇄' 발언**

김의환 미국 뉴욕 총영사가 뉴욕대표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정면충돌했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비판하며 "중북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조정식 의원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죠?"라고 묻자,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없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8) 피감기관이 “범죄자”인가요?

### 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간족댄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간족댄다'는 표현을 쓰자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며 "제가 지금 간족댄다.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소란이 계속되자 신정훈 위원장은 오전 11시 32분께 감사 중지를 선언해 정회했고, 11시 55분께 감사가 재개됐다.

### ②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사무총장에게 “낄낄빠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달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국사찰 정권'(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야당을 탄압)을 질의하는 중에 최 사무총장이 다시 말을 끊었다. 박 의원은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모르느냐”며 힐책했다.

### ③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마스크쓴 증인 퇴장명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0.10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출신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간부(황인수 조사1국장)가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퇴장을 명하였다. 아울러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도 황인수 국장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별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퇴장 조치 하였습니다.

### ④ 감사가 아닌 범죄수사같은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의 관저공사, 양평고속도로 계획변경,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등 매우 위협적이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5일 방송통신위원회(YTN, TBS 관련)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YTN 민영화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문제로 증인신문으로 진행되어 수사하는 듯한 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의 관저공사 책임논란은 감사가 아닌 **범죄수사**를 하는 듯 하였습니다.

## 6. 제22대 국회에서도 변하지 않은 국정감사장

### (1) 답변 없이 대기하는 피감기관

- ① 역대 최다의 피감기관(802개)을 동시 국정감사로 하다보니, 기관증인까지 거의 대부분 하루 종일 질의한번 받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② 2024년도 2주차(10.7~10.18)까지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답변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국회공보에 따르면 실시한 피감기관 630개 기관(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 제외) 중 209개 기관이 단 한번도 질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실시 피감기관의 33.2%가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한 기관이 많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와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로 각각 37개 기관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어처구니없는 파행**

- ① 국회의원 컴퓨터의 부착된 표어로 인해 **환경노동위원회**의 첫날 환경부 국정감사가 일시 정회하였습니다.
- ②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검찰 로고가 국회법 제140조에 의한 반입금지물품으로 철거되면서 약 3분간 정회되기도 하였습니다.

**(3) 효율성 의문인 재외공관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3개 반을 나눠서 비행기 시간이 국정감사 시간보다 더 걸리는(?)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국정감사를 하였어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비효율의 끝판왕 국정감사로 회기하였습니다.

**(4) 아무도 모르는 현장시찰**

- 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지난해(2023년) 전남 목포에 있는 전국체전 참가 등을 위해 현장시찰을 하였는데, 올해에도 원주 등 강원권 현장시찰을 하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역시 10월 15일 목포해남에서 목포신항 시찰을 하였으며,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는 부산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 시찰을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 ②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0. 14. 특수학교 시찰을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장시찰은 현장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감사와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들이 수업 참관을 포함해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 ③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14일(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현장과 김제 용지를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였고, 10월 18일(금) 오후 3시부터 안동댐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 도산대교 예정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회공보를 통해 본 제22대 국회 위원회별 현장시찰 현황»**

위원회	시찰일	시찰장소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10-11	서울,월성원전및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국 방	2024-10-11	서울지방병무청
문화체육관광	2024-10-11	원주등 강원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4-10-11	여주 알피시
환경노동	2024-10-11	기상청 서울청사
교육	2024-10-14	수원 한누리유치원, 안산 석수초등학교
국 방	2024-10-14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환경노동	2024-10-14	새만금
국토교통(지방1반)	2024-10-14	가덕도신공항

위원회	시찰일	시찰장소
국토교통 (지방2반)	2024-10-14	새만금
정무	2024-10-15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2024-10-15	목포신항해상풍력배후항만(오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024-10-15	솔라시도(오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2024-10-16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교육 (지방2반)	2024-10-17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국방위원회	2024-10-17	육군부사관학교(익산)
행정안전 (지방1반)	2024-10-17	공평2지하차도
국토교통	2024-10-17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024-10-18	월성 원자력본부(오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오후)
교육위원회(지방 1반)	2024-10-18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10-18	지하실험연구단 등 2개 기관
환경노동	2024-10-18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 (5) 국정감사장 밖 시위

- ① 교수 등 충북대 의대 구성원 40여명이 10. 18.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열린 충북대 의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 ② 10.18.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부산대 의과대학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 소속 교수, 학생들이 조건 없는 학생 휴학과 대학의 자율성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 (6) 파행을 초래하는 의사진행발언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위원장의 공정한 회의진행을 촉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사진행으로 인해 파행을 초래하는 경우도 여전하였습니다.

# 데이터와 모니터보고를 통해 본 2024년도 국정감사 이모저모

## I. 화제성 2024년도 국정감사 자료

### 1. 국정감사장에 출석요구 배석시키고, 질문 안기

2024년도 2주차까지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답변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국회공보 상 실시한 피감기관 630개 기관(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 제외) 중 209개 기관이 단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실시 피감기관의 33.2%가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답변을 받지 못한 기관이 많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와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로 각각 37개 기관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역대 최다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놓고, 감사일수는 대폭 줄여서 더욱 더 그런 현상이 더 많아 지게 되었다.

#### «2024년도 감사 도중 피감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한 곳»

위원회	실시기관수	질의 없는 기관	비율
법 제 사 법	29	12	18.18%
정 무	38	20	52.63%
기 획 재 정	10	1	10.00%
교 육	67	2	2.99%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위 원 회	86	37	43.02%
외 교 통 일	10	3	30.00%
국 방	67	37	55.22%
행 정 안 전	25	3	13.04%
문 화 체 육 관 광	55	13	23.64%
농 립 축 산 식 품	33	5	15.15%
해 양 수 산	50	22	44.00%
상 업 통 상 자 기 협 회	37	12	32.43%
보 건 복 지	62	33	53.23%
환 경 노 동	24	9	34.62%
국 토 교 통	24	9	34.62%
계	630	209	33.17%

참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년 내내 53개 기관을 정해 놓고 감사위원(의원)이 질의할 피감기관만을 국감당일 참석케 하고, 그 마저도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분할 감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서까지 채택하였으나, 다시 수정하여 채택하지 못하였고, 53개 중 24개 기관은 질의를 받지 못하였다.

**<<2024년도 국정감사 중 질의를 받지 못한 못한 기관현황>>**

위원회	감사일자	질의 없는 기관	비고
법 제 사 법	2024-10-07	사법정책연구원	
법 제 사 법	2024-10-07	법원공무원교육원	
법 제 사 법	2024-10-07	법원도서관	
법 제 사 법	2024-10-07	윤리감사관	
법 제 사 법	2024-10-0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 제 사 법 (지 방 1 반)	2024-10-17	특허법원	
법 제 사 법 (지 방 1 반)	2024-10-17	대전가정법원	
법 제 사 법 (지 방 1 반)	2024-10-17	광주가정법원	
법 제 사 법 (지 방 2 반)	2024-10-17	창원지방법원	
법 제 사 법	2024-10-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법 제 사 법	2024-10-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법 제 사 법	2024-10-18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장만 11번 받음
정 무	2024-1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 무	2024-10-07	국토연구원	
정 무	2024-1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무	2024-10-07	에너지경제연구원	
정 무	2024-10-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 무	2024-10-07	통일연구원	발언만
정 무	2024-10-07	한국개발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개발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교통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노동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법제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 무	2024-10-07	한국행정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 무	2024-10-07	한국환경연구원	
기 획 재 정	2024-10-16	인천지방국세청	
교 육	2024-10-08	중앙교육연수원	
교 육	2024-10-08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과 방 학 술 통 정 보 신	2024-10-07	방송통신사무소	안나온듯
과 방 학 술 통 정 보 신	2024-10-08	중앙전파관리소	
과 방 학 술 통 정 보 신	2024-10-08	국립중앙과학관	
과 방 학 술 통 정 보 신	2024-10-08	국립과천과학관	

위원회	감사일자	질의 없는 기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08	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08	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08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0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08	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08	국가위성운영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08	우주환경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0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나노종합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4-10-17	한국화학연구원	
외교통일위원회	2024-10-07	한·아프리카재단	
외교통일위원회	2024-10-07	재외동포협력센터	
외교통일위원회	2024-10-0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방위원회	2024-10-08	국군정보사령부	
국방위원회	2024-10-08	국방시설본부	
국방위원회	2024-10-08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위원회	2024-10-08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위원회	2024-10-08	국군체육부대	

위원회	감사일자	질의 없는 기관	비고
국 방	2024-10-08	국군복지단	
국 방	2024-10-08	국군간호사관학교	
국 방	2024-10-08	국방출판지원단	
국 방	2024-10-08	국군재정관리단	
국 방	2024-10-08	국방부조사본부	
국 방	2024-10-08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 방	2024-10-0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 방	2024-10-08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 방	2024-10-08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 방	2024-10-08	국방전산정보원	
국 방	2024-10-08	국방홍보원	
국 방	2024-10-0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국 방	2024-10-08	6·25 비정규군보상지원단	
국 방	2024-10-08	한국국방연구원	
국 방	2024-10-08	국방전직교육원	
국 방	2024-10-10	국군수송사령부	
국 방	2024-10-10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 방	2024-10-10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 방	2024-10-10	합동군사대학교	
국 방	2024-10-10	전략사령부	
국 방	2024-10-11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 방	2024-10-17	육군군수사령부	
국 방	2024-10-17	육군인사사령부	
국 방	2024-10-17	육군동원전력사령부	
국 방	2024-10-17	육군학생군사학교	
국 방	2024-10-18	해군군수사령부	
국 방	2024-10-18	해군교육사령부	
국 방	2024-10-18	해군사관학교	
국 방	2024-10-18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국 방	2024-10-18	공군군수사령부	
국 방	2024-10-18	공군교육사령부	
국 방	2024-10-18	공군사관학교	
행정안전	2024-10-0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행정안전	2024-10-07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행정안전	2024-10-07	한국자유총연맹	
문화체육관광	2024-10-10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체육관광	2024-10-10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체육관광	2024-10-10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문화체육관광	2024-10-10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체육관광	2024-1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	2024-10-15	국제방송교류재단	

위원회	감사일자	질의 없는 기관	비고
문화체육관광	2024-10-15	언론중재위원회	
문화체육관광	2024-10-17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관광	2024-10-17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	2024-10-1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	2024-10-18	국립발레단	
문화체육관광	2024-10-18	국립현대무용단	
문화체육관광	2024-10-18	한국문화원연합회	
농림축산식품	2024-10-1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축산식품	2024-10-1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	2024-10-16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발언만
농림축산식품	2024-10-18	농협생명보험	
농림축산식품	2024-10-18	NH투자증권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08	한국발명진흥회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0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0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08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08	한국특허정보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08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1	한국세라믹기술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1	무역안보관리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전KDN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전KPS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전원자력연료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국중부발전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국남부발전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국동서발전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4	한전MCS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7	한국에너지재단	
사상충돌예방위원회	2024-10-17	한국가스기술공사	
보건복지	2024-10-1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복지	2024-10-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	2024-10-1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	2024-10-1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	2024-10-1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	2024-10-1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	2024-10-1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원회	감사일자	질의 없는 기관	비고
보건복지	2024-10-1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보건복지	2024-10-10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보건복지	2024-10-10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복지	2024-10-1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	2024-10-17	한국한의학진흥원	
환경노동	2024-10-11	수치모델링센터	
환경노동	2024-10-1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환경노동	2024-10-11	수도권기상청	
환경노동	2024-10-11	부산지방기상청	
환경노동	2024-10-11	광주지방기상청	
환경노동	2024-10-11	강원지방기상청	
환경노동	2024-10-11	대전지방기상청	
환경노동	2024-10-11	대구지방기상청	
환경노동	2024-10-11	제주지방기상청	
환경노동	2024-10-11	국가기상위성센터	
환경노동	2024-10-11	기상레이더센터	
환경노동	2024-10-11	국립기상과학원	
환경노동	2024-10-11	항공기상청	
환경노동	2024-10-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노동	2024-10-11	APEC기후센터	
환경노동	2024-10-11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환경노동	2024-10-14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노동	2024-10-1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노동	2024-10-1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환경노동	2024-10-14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노동	2024-10-14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노동	2024-10-14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노동	2024-10-14	한강홍수통제소	
환경노동	2024-10-14	낙동강홍수통제소	
환경노동	2024-10-14	금강홍수통제소	
환경노동	2024-10-14	영산강홍수통제소	
환경노동	2024-10-1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환경노동	2024-10-1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환경노동	2024-10-1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노동	2024-10-17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노동	2024-10-17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노동	2024-10-17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노동	2024-10-17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토교통	2024-10-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	2024-10-10	건설기술교육원	발언만 48초
국토교통	2024-10-11	코레일관광개발(주)	

위원회	감사일자	질의 없는 기관	비고
국 토 교 통	2024-10-11	코레일로지스(주)	
국 토 교 통	2024-10-11	코레일유통(주)	
국 토 교 통	2024-10-11	코레일테크(주)	
국 토 교 통	2024-10-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 토 교 통	2024-10-16	새만금개발공사	
국 토 교 통	2024-10-16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2.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정쟁과 감정싸움으로 파행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의혹 관련에 국정감사 집중된 가운데, 국정감사 도중 막말, 증인의 불출석과 동행명령 관련 여야간의 감정 대립으로 원활하지 못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곳이 있었다.

### <<2024년도 국정감사 파행성 정회가 있었던 감사장 현황>>

모니터 위원 보고에 따른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파행이유 및 결과
10.7(월)	행 정 안 전	행정안전부	국회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 국감증인이 불출석하여 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
10.8(화)	정 무	국민권익위원회 등	세종	정승윤 부위원장의 국회의원 고발건에 대한 발언이 문제되며 민주당 천준호의원이 윤한홍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으며 강한 항의함냐사
	사 업 통 상 위 원 회 소 벤 치 업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가 악을 쓴다'고 하여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장과 언쟁
	환 경 노 동	환경부	국회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감사에 앞서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에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라 적힌 표어를 부착해서 이 문구를 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져
10.10(목)	환 경 노 동	고용노동부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안 질의가 시작되기 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른바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을 두고 논란이 빚어져(오후에 국정감사 출석요구 취소, 장관을 퇴장시킨 후 국정감사진행)
	행 정 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관 증인이 마스크를 벗으라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명령을 거부, 퇴장당하고,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퇴장 조치
10.11(금)	사 업 통 상 위 원 회 소 벤 치 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회	박지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업체가 코트라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여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파행이유 및 결과
10.15(화)	법 제 사 법	감사원	국회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를 두고 야당이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고, 여당이 이를 저지하면서
	과 학 기 술 방 송 통 신	방송통신위원회(증인신문)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환노위 참고인 하나와의 면담의혹 제기와 박정훈 의원에 대한 사과요구 및 질의제한(이후 반쪽 국감)
	행 정 안 전	서울시	서울시청	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간쭈거린다'라고 발언하자 오세훈 시장은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라고 맞섰고 여당 의원들도 반발 충돌해
10.17(목)	법 제 사 법 ( 2 반 )	대구고등검찰청 등	대구고검	이건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송경호 부산고검장이 "누구보다(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으로
1.18.(금)	법 제 사 법	서울고등검찰청 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10.17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으로
	국 방	해군본부 등	해군본부	이윤세 해병대 전 정훈실장이 참고인으로 지정됐지만, 전역 준비를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야당은 김 사령관을 향해 "무책임한 군인을 쓰냐", "사령관이 못 오게 빼돌린 것 아니냐"며 질타하자, 해병대사령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전체가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로 퇴장하여

### 3. 가뜩이나 감사시간도 없는 데 일반증인 신문까지

#### 정쟁성 증인,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계속 발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의 경우에는 5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참고인 포함)이 있었다. 불출석 증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등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4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15.에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3회씩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이번 2024년도 특징은 당해 피감기관의 핵심업무와 관련 없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

하여 질의함으로써 감사대상기관의 핵심업무를 감사하는데 지장을 초래 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일반 증인 신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사고나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표나 일반 인사들이 많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유효하지만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증인이 많아서 기관증인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일반증인을 신문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난맥상, 예산낭비, 입법불비로 인한 부정부패 요소 등을 점검하는 본래적 취지에 맞지 않다.

예컨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새벽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나 10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단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했다.

**«국감모니터위원 보고에 따른 일반증인(참고인포함)이 있었던 국정감사장 현황»**

**2024.10. 7~2024.10.18**

순번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기관증인	
				피감기관수	질의없는 기관
1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10-07	방송통신위원회	4	1
2	행정안전	2024-10-07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10	3
3	문화체육관광	2024-10-07	문화체육관광부	1	0
4	농림축산식품	2024-10-07	농림축산식품부	1	0
5	산업통상자원	2024-10-07	산업통상자원부	1	0
6	국토교통	2024-10-07	국토교통부	3	1
7	법제사법	2024-10-08	법무부	5	1
8	정무	2024-10-08	국민권익위원회	2	0
9	교육	2024-10-08	교육부	8	2
10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14	10
11	농림축산식품	2024-10-08	국회	1	0
12	산업통상자원	2024-10-08	중소벤처기업부	8	6
13	보건복지	2024-10-0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	0
14	환경노동	2024-10-08	환경부	1	0
15	정무	2024-10-10	금융위원회	3	0
16	행정안전	2024-1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0
17	문화체육관광	2024-10-10	국가유산청	8	4
18	보건복지	2024-10-10	식품의약품안전처	14	11
19	환경노동	2024-10-10	고용노동부	1	0
20	법제사법	2024-10-11	군사법원	1	0
21	기획재정	2024-10-11	기획재정부	1	0
22	행정안전	2024-10-11	경찰청	2	0
23	농림축산식품	2024-10-11	농촌진흥청	8	1
24	국토교통	2024-10-11	한국철도공사	8	4
25	법제사법	2024-10-14	고위공직범죄수사처	1	0
26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10-14	한국방송공사	3	0

순번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기관증인	
				피감기관수	질의없는 기관
27	행정안전	2024-10-14	경기도	1	0
2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24-10-14	한국전력공사	16	10
29	법제사법	2024-10-15	감사원	1	0
30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10-15	방송통신위원회	1	0
31	행정안전	2024-10-15	서울특별시	1	0
32	문화체육관광	2024-10-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3
33	환경노동	2024-10-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2
34	기획재정	2024-10-16	국세청	4	1
35	국토교통	2024-10-16	국회	9	3
36	정무	2024-10-17	금융감독원	2	0
37	행정안전 (지방1반)	2024-10-17	충청북도	1	0
38	문화체육관광	2024-10-17	한국콘텐츠진흥원	14	2
39	환경노동	2024-10-17	한국수자원공사	11	5
40	보건복지	2024-10-18	국민연금공단	2	0

#### 4. 국정감사까지 코리언 타임 아니면 특권의식의 발로 감사개시 시각이 10분 이상 지각한 감사(10.18까지) 21군데

오후 감사시간을 제외한 오전 감사시간만을 파악해 본 결과 감사 개시 시각은 주로 10시에 시작되었다.

10분 이상 지각 개최한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가 4번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감사반장 신정훈)도 1회 지각했다.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각각 3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가 각각 1회씩 국정감사를 늦게 개시했다.

분반을 나눠서 한 감사에서는 이번 지역을 나눠서 감사한 **법제사법위원회** 지방1반(감사반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지방 2반(감사반장 유상범)이 지각 감사를 하였다. **교육위원회** 지방1반(감사반장 김영호)와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감사반장 신정훈)도 지각개의를 하였다.

#### <<2024년도 10분 이상 지각 감사개시한 상임위원회 현황>>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대상기관	기관수
1	행정안전	2024-10-07	10:24	25:56:00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10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4-10-07	10:27	22:24	농림축산식품부	1
3	국토교통	2024-10-07	10:11	23:48	국토교통부	3
4	정무	2024-10-08	10:14	19:45	국민권익위원회	2
5	정무	2024-10-10	10:12	20:23	금융위원회	3
6	행정안전	2024-10-10	10:19	23: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대상기관	기관수
7	환 경 노 동	2024-10-10	10:13	25:14:00	고용노동부	1
8	국 토 교 통	2024-10-10	10:14	20:40	한국토지주택공사	4
9	환 경 노 동	2024-10-11	10:35	12:26	기상청	17
10	행 정 안 전	2024-10-14	10:15	18:39	경기도	1
11	산 업 통 상 자 임	2024-10-14	10:35	20:01	한국전력공사	16
12	방 송 과 학 기 술 정 보	2024-10-15	10:10	23:35	방송통신위원회	1
13	행 정 안 전	2024-10-15	10:13	19:40	서울특별시	1
14	문 화 체 육 관 광	2024-10-15	10:10	23: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15	법 제 사 법(지방1반)	2024-10-17	10:30	12:18	대전고등법원	10
16	법 제 사 법(지방2반)	2024-10-17	10:36	12:19	대구고등법원	10
17	정 무	2024-10-17	10:11	22:22	금융감독원	2
18	교 육 ( 지 방 1 반 )	2024-10-17	10:32	12: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
19	행 정 안 전(지방1반)	2024-10-17	10:12	13:32	충청북도	1
20	환 경 노 동	2024-10-17	10:25	19:08	한국수자원공사	11
21	교 육 ( 지 방 1 반 )	2024-10-18	10:30	13:13	충북교육청	4

반면, 국정감사 계획서상의 감사개시시각(1분정도 여유감안)을 지킨 위원회는 정시 개의의를 약속한 정청래 위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2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가 1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1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와 국토교통위원회 지방 1반(감사반장 맹성규), **교육위원회** 지방2반(감사반장 조정훈)이 각 1회씩이었다.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상의 감사시간을 지킨 국정감사 현황»

연번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대상기관	기관수
1	법 제 사 법	2024-10-07	10:01	22:16	대법원(법원행정처)	7
2	법 제 사 법	2024-10-08	10:00	23:25	법무부	5
3	과 방 학 기 술 통 정 보	2024-10-08	10:01	19:4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14
4	과 방 학 기 술 통 정 보	2024-10-10	10:01	12:5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5	법 제 사 법	2024-10-11	9:59	12:12	헌법재판소	2
6	법 제 사 법	2024-10-14	9:59	12:21	법제처	1
7	환 경 노 동	2024-10-14	10:00	12: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
8	국토교통(지방1반)	2024-10-14	10:00	13:11	부산광역시	1
9	법 제 사 법	2024-10-15	10:00	23:35	감사원	1
10	국 토 교 통	2024-10-16	10:00	19:15	국회	9
11	교 육 ( 지 방 2 반 )	2024-10-17	10:01	12:02	경상북도교육청	3
12	국 방	2024-10-17	10:01	15:20	육군본부	11

**5. 23시 이상 심야 국정감사를 진행한 횟수는 총 16회**

2주차까지(10.18)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밤 11시 이후에 국정감사가 끝난 감사는 모

두 16개였다. 위원회별로는 모두 3개 위원회가 공교롭게도 3번씩 심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었다. 자정을 넘겨서 계속한 경우는 6번이나 되었다.

**«밤11시를 넘긴 2024년도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대상기관	기관수
1	정 무	2024-10-07	10:08	23:11	국무조정실	27
2	과 방 학 기 술 통 정 보 신	2024-10-07	10:04	23:59	방송통신위원회	4
3	행 정 안 전	2024-10-07	10:24	25:56:00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10
4	산 업 통 상 자 원	2024-10-07	10:05	24:05:00	산업통상자원부	1
5	보 건 복 지	2024-10-07	10:08	23: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
6	국 토 교 통	2024-10-07	10:11	23:48	국토교통부	3
7	법 제 사 법	2024-10-08	10:00	23:25	법무부	5
8	교 육	2024-10-08	10:06	26:17:00	교육부	8
9	행 정 안 전	2024-10-10	10:19	23: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10	환 경 노 동	2024-10-10	10:13	25:14:00	고용노동부	1
11	과 방 학 기 술 통 정 보 신	2024-10-14	14:31	25:39:00	한국방송공사	3
12	법 제 사 법	2024-10-15	10:00	23:35	감사원	1
13	과 방 학 기 술 통 정 보 신	2024-10-15	10:10	23:35	방송통신위원회	1
14	행 정 안 전	2024-10-15	21:10	25:13:00	서울경찰청	1
15	문 화 체 육 관 광	2024-10-15	10:10	23: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16	법 제 사 법	2024-10-18	10:00	23:16	서울고등검찰청	11

**6. 의사진행발언(자료요구 포함)이 감사시간의 10%이상 차지했던 국정감사장은 24곳**

2주차까지 정회시간을 뺀 실제감사시간 대비 의사진행발언 비중을 살펴 본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재경지역 검찰청 국정감사가 28.68%로 가장 높았다. 의사진행발언이 많다는 것은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의사진행 발언 비중이 높았던 국정감사(높은 순)»**

위원회	감사일	실제감사시간	대상기관	기관수	의사진행시간	비중
법제사법위원회	2024-10-18	7:11:07	서울고등검찰청	11	2:03:39	28.68%
과 방 학 기 술 통 정 보 신	2024-10-07	10:27:35	방송통신위원회	4	2:42:41	25.92%
법제사법(지방1반)	2024-10-17	1:47:51	대전고등법원	10	0:27:33	25.54%
법 제 사 법	2024-10-08	6:34:22	법무부	5	1:31:55	23.31%
환 경 노 동	2024-10-10	7:05:03	고용노동부	1	1:38:46	23.24%
행 정 안 전	2024-10-07	9:43:08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10	2:04:56	21.42%
행 정 안 전	2024-10-10	8:28: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1:43:40	20.38%
법 제 사 법	2024-10-14	1:37:12	법제처	1	0:19:29	20.04%
법 제 사 법	2024-10-15	7:46:48	감사원	1	1:29:02	19.07%

위원회	감사일	실제감사시간	대상기관	기관수	의사진행시간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10-15	9:02:58	방송통신위원회	1	1:33:03	17.14%
외교통일	2024-10-07	7:41:26	외교부	6	1:12:42	15.76%
교육	2024-10-08	11:50:43	교육부	8	1:43:54	14.62%
국토교통	2024-10-07	10:30:32	국토교통부	3	1:26:19	13.69%
문화체육관광	2024-10-10	7:09:56	국가유산청	8	0:54:37	12.70%
행정안전	2024-10-11	8:05:14	경찰청	2	1:01:07	12.60%
문화체육관광	2024-10-07	8:40:51	문화체육관광부	1	1:04:55	12.46%
산업통상자원	2024-10-14	7:38:22	한국전력공사	16	0:55:07	12.02%
산업통상자원	2024-10-11	6:49: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0:49:08	12.01%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10-14	9:14:33	한국방송공사	3	1:04:06	11.56%
산업통상자원	2024-10-07	9:18:34	산업통상자원부	1	1:03:17	11.33%
행정안전(지방1반)	2024-10-17	3:20:17	충청북도	1	0:21:56	10.95%
문화체육관광	2024-10-15	9:23: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1:01:22	10.90%
국방	2024-10-08	8:28:44	국방부(용산)	29	0:51:55	10.21%
행정안전	2024-10-15	7:07:21	서울특별시	1	0:43:27	10.17%

## II. 국정감사제도 관련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

### 1. 시기(정기국회 전) 및 기간(30일) 모두 법과 원칙 안 지키고 예외로 운영

19대 국회(2012)에서 정기국회 전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즉,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진행하였고, 감사기간도 30일이 아닌 20일 내외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더욱 이번 2024년도 국정감사에는 명목 국정감사일수도 19일로 편성하였다.

«정기국회 전 위원회별로 국정감사로 되어 있는 현행 국정감사법상의 국감기간 현황»

국회	정부	집권여당	연도	시작일(요일)	종료일(요일)	명목일수
제19대	이명박정부	한나라당	2012	2012.10.5.(금)	2012.10.24.(수)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3	2013.10.14.(월)	2013.11.2.(토)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4	2014.10.7.(화)	2014.10.27.(월)	21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5	2015.9.10.(목)	2015.10.9.(금)	23일
제20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6	2016.9.26.(월)	2016.10.18.(화)	23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7	2017.10.12.(목)	2017.10.31.(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8	2018.10.10.(금)	2018.10.29.(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9	2019.10.02.(수)	2019.10.21.(월)	20일
제21대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0	2020.10.07.(수)	2020.10.26.(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1	2021.10.01.(금)	2021.10.21.(목)	21일

국회	정부	집권여당	연도	시작일(요일)	종료일(요일)	명목일수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2	2022.10.04.(화)	2022.10.24.(월)	<b>21일</b>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3	2023.10.10.(화)	2023.10.27.(금)	<b>18일</b>
제22대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4	2024.10.7(월)	2024.10.25(금)	<b>19일</b>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2. 애써서 증인신청 해놓고, 철회는 왜?

- 자신이 신청하고 자신이 철회/ 대부분 기업증인/ 국감 중 의심가는 행동하지 말아야 / 신청위원의 철회 신청으로 철회된 건수가 21대 국회 202건(전체 증인철회건수는 244건)이나

이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철회를 위한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 회의는 40차례 열렸고, 과방위의 경우에는 연합뉴스, MBC 등 비공개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와 관련된 안건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회의의 10월 7일 행안부 국정감사 시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여야간의 갈등이 빚어져 파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 연도별 증인요구수 및 신청위원의 철회요청에 의해 철회된 건수 »

감사연도	일반증인 요구수	철회증인 총수	신청위원의 철회요청
2020년도	<b>200</b>	<b>53</b>	<b>37</b>
2021년도	<b>190</b>	<b>64</b>	<b>53</b>
2022년도	<b>231</b>	<b>71</b>	<b>62</b>
2023년도	<b>245</b>	<b>56</b>	<b>50</b>
계	<b>866</b>	<b>244</b>	<b>202</b>

※ 출처 및 자료 :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정감사 통계자료집 재가공

### «10. 18.까지 2024년도 국정감사 기간중 위원회 회의 현황»

	위원회	일자	회의 차수	출석 의원	내용
1	외 교 통 일	2024-10-07	2	20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	과 학 기 술 정 보 신	2024-10-07	5	20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3	행 정 안 전	2024-10-07	4	2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건
4	문 화 체 육 관 광	2024-10-07	3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추가의 건
5	농 립 축 산 수 품 한	2024-10-07	4	19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변경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6	상 업 통 상 자 원 협	2024-10-07	4	24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요구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7	보 건 복 지	2024-10-07	3	2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 인출석요구 철회 추가 및 변경 의견
8	국 토 교 통	2024-10-07	4	2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출석 요구의 건

	위원회	일자	회의 차수	출석 의원	내용
9	법 제 사 법	2024-10-08	9	1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0	정 무	2024-10-08	3	24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의 회의 비공개 요구의 건
11	교 육	2024-10-08	4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2	정 무	2024-10-10	4	24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철회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3	과 학 기 술 정 보 신	2024-10-10	6	20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4	행 정 안 전	2024-10-10	5	2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5	문 화 체 육 관 광	2024-10-10	4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추가의 건
16	보 건 복 지	2024-10-10	4	2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17	환 경 노 동	2024-10-10	4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18	법 제 사 법	2024-10-11	10	1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19	기 획 재 정	2024-10-11	3	2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20	교 육	2024-10-11	5	10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21	국 토 교 통	2024-10-11	5	2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22	정 무 위 원 회	2024-10-14	5	2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23	과 학 기 술 정 보 신	2024-10-14	7	20	문화방송 업무현황 보고(비공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24	행 정 안 전	2024-10-14	6	22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5	법 제 사 법	2024-10-15	11	18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출석 요구의 건 현장검증 실시의 건
26	교 육	2024-10-15	6	1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27	과 학 기 술 정 보 신	2024-10-15	8	20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28	국 방	2024-10-15	4	11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9	국 회 운 영	2024-10-16	4	27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30	기 획 재 정	2024-10-16	4	2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31	행 정 안 전	2024-10-16	7	2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32	농 립 축 산 식 품	2024-10-16	5	1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
33	보 건 복 지	2024-10-16	5	2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4	국 토 교 통	2024-10-16	6	2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35	정 무	2024-10-17	6	24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2024년 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36	문 화 체 육 관 광	2024-10-17	6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추가의 건
37	환 경 노 동	2024-10-17	5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재출석 요구의 건
38	법 제 사 법	2024-10-18	12	18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39	문 화 체 육 관 광	2024-10-18	7	16	업무보고(비공개) 연합뉴스
40	농 립 축 산 식 품	2024-10-18	6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변경의 건

**«제21대 국회 연도별 철회증인의 철회사유 분석»**

연도	위원회	철회증인 총수	신청위원 철회요청	여야간사 협의(여야 협의)	증인대체( 변경)	증인→참 고인	비공개 간담
2020	기 획 재 정	1	1	0	0	0	
	교 육	2	2	0	0	0	
	행 정 안 전	7	3	0	2	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5	15	0	0	0	
	상공부 중소벤처기업	12	0	11	0	1	
	보 건 복 지	7	7	0	0	0	
	환 경 노 동	9	9	0	0	0	
	소계	<b>53</b>	<b>37</b>	<b>11</b>	<b>2</b>	<b>3</b>	<b>0</b>
2021	정 무	4	4	0	0	0	
	교 육	7	7	0	0	0	
	과학기술정보 통신	1	1	0	0	0	
	행 정 안 전	2	0	1	1	0	
	문화체육관광	1	1	0	0	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31	29	0	0	0	2
	상공부 중소벤처기업	6	4	0	2	0	0
	보 건 복 지	7	7	0	0	0	0
	환 경 노 동	4	0	4	0	0	0
	국 토 교 통	1	0	0	1		
	소계	<b>64</b>	<b>53</b>	<b>5</b>	<b>4</b>	<b>0</b>	<b>2</b>
2022	정 무	12	12	0	0		
	과학기술정보 통신	5	1	4	0		
	행 정 안 전	1	0	0	1		
	문화체육관광	5	5	0	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20	20	0	0		
	상공부 중소벤처기업	15	14	0	1		
	보 건 복 지	9	9				
	환 경 노 동	3	0	3			
	국 토 교 통	1	1				
	소계	<b>71</b>	<b>62</b>	<b>7</b>	<b>2</b>	<b>0</b>	<b>0</b>
2023	정 무	14	14				
	교 육	3		3			
	행 정 안 전	1		1			
	문화체육관광	4	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3	3				
	상공부 중소벤처기업	16	11		5		
	보 건 복 지	8	8				
	환 경 노 동	7	7				
	소계	<b>56</b>	<b>46</b>	<b>4</b>	<b>6</b>	<b>0</b>	<b>0</b>

### 3. 결과보고서도 채택 않고 공개기

국정감사모니터단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를 시작한 15대 국회말부터 조사해 본 결과, 제20대국회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경우가 있었다(2016년도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국정감사).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 이후 여야간의 대결이 심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2023년에 국정감사 후 9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개정을 하였으나, 지켜지기는커녕 선거 여파로 채택한 위원회가 5개에 불과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인 지난해(2023년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나 되고 있다.

2022년도 결과보고서는 11군데만 채택하였다.

2021년도 결과보고서는 처리되지 않는 위원회가 2곳이 이었다.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2020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지 않은 위원회는 4곳이나 된다.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당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과보고서가 여야의 입장차로 채택이 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법사위의 2023. 10. 13. 이탄희 전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표현) **국회**이다.

####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현황»

국감조법 15, 16조 1: 채택, ○ : 미채택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건수	2020년도 국정감사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국정감사	2023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	2	0	1	1	0
법제사법	2	1	1	0	0
정무	4	1	1	1	1
기획재정	3	1	1	1	0
교육	0	0	0	0	0
과학기술정보통신	2	1	1	0	0
외교통일	3	1	1	1	0
국방	2	1	0	1	0
행정안전	4	1	1	1	1
문화체육관광	3	1	1	1	0
농림축산식품	2	1	1	0	0
해양수산	2	1	1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	0	1	0	0
보건복지	3	1	1	1	0
환경노동	2	0	1	0	1
국토교통	4	1	1	1	1
정보	3	1	1	1	0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건수	2020년도 국정감사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국정감사	2023년도 국정 감사
여 성 가 족	4	1	1	1	1
계	44	13	15	11	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3.7.11]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18.4.17.]

#### 4. 시간 제약으로 인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의 질의/ 답변 ⇒ 국민의 충분한 알 권리 차단 (감사위원별 마이크 커진 상태는 종합정밀평가지 발표)

상임위원장은 감사시작할 때 질의시간을 7분, 5분, 3분 지정하면서 꼭 질의시간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하나, 대부분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양해를 구해서 1분 정도 더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질의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중단되어 소리없는 국정감사를 하다가, 피감기관의 답변으로 질의내용을 알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였다.

질문시간을 시간을 제한하여 일문 일답 질의를 할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길어지면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에는 정청래 위원장이 피감기관이 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라고까지 하였다. 손을 들지 않고 말을 할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즉, 피감기관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가로막고 일괄질문을 하면서, 긴 질문에 짧은 답변만을 요구하고, '예, 아니오'로만 답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문일답의 원칙**이 사라지고 있어 피감기관의 실정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충실한 국감이 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제한 시간이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질의를 하여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였다.